

여성의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전혜성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The Effects of Familism and Sense of intimacy to Older parents on Filial Responsibility of Korean Women

Hye-Seong Jeon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활발한 사회진출, 결혼가치관 변화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부모와의 친밀감, 노부모 부양의식을 어느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족가치관 및 부모 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영향력을 갖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422명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부모친밀감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특성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부모친밀감은 5점 만점에서 각각 3.23점, 3.40점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노부모 부양의식은 4.0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친밀감, 월수입 등이 부양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현대여성의 부양의식은 상당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여성의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 월수입 등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여성, 노부모 부양의식, 가족주의가치관, 부모친밀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familism and sense of intimacy on Filial responsibility of women.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4 to June, 2014 and 422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mean of filial responsibility, familism and sense of intimacy were higher than average. Especially, the mean score of filial responsibilit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Second, both of familism and sense of intimacy, incom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filial responsibility. So, filial responsibility has been kept and both of familism and sense of intimacy were revealed as significant factors to filial responsibility.

Key Words : Women, Filial Responsibility, Familism, Sense of Intimacy to Older Parents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Received 31 March 2016, Revised 26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Jeon, HyeSeong(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Email: hsjeon@dankook.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재 여성의 노인부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민감한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 화두이다. 서구에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 ‘부양’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민감한 주제가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부양은 여성의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그러한 역할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가 노화나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인지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가족에게 최우선적인 책임이 주어졌다. 이것은 동서양에 구분 없는 가족규범으로 적용되었다[1,2].

그러나 가속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증가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 여성의 가치관 변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이전 여성이 부담해오던 가족 내 돌봄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여성의 가족 부양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3,4]. 당연히 되던 여성의 가족부양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최근 서구사회 한편에서는 의료와 과학의 발전, 연장된 수명으로 인해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이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층에 대한 부양을 잠재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의무와 부담으로 짐 지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관이 부양의식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과거 한국사회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가족주의를 지향해왔다. 전통적 가족주의에서는 각 개인이 ‘나’라는 독립적인 자아로 존재하기 보다는 가족의 한 부분, 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 더 많이 설명되어 왔다. 가족은 개인 삶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6].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 가치관 변화, 낮은 혼인율 및 높은 이혼율 등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진출과 취업, 여권신장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성인여성들이 과거와 같이 가족을 개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자리매김하고 개인적 선택과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의 이익을 다른 개인적 가치보다 더 우선시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의 성인여성에게 과거 전통적인 부양의

식을 당연시하며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부양의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고학력, 직업경험 및 사회적 진출 성향이 높은 경력개발 성향이 높은 집단일 경우,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부양의식이 낮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7]. 이는 여성의 고학력층이 증가하고 사회적 진출이 높아질수록 낮은 부양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통 부양의식은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서비스 부양으로 구성된다. 이에 현대 성인여성들의 부양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점에서 고령사회에서의 가족적응 방법을 모색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다.

사실상 최근 10년간은 여성의 부양의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진하였다. 여성의 부양의식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와에 2000년대 중반까지 집중 연구되어 온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여성의 돌봄 역할에 따른 부양의식 계승이 필수불가피한 이슈이면서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여권이 신장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노인 돌봄과 부양의식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왠지 사회적으로 불편한 주제가 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시대의 부양의식에 대한 논의는 정체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 여성의 부양의식의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의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 부양의식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고, 가족친밀감은 현대 가족의 가치 중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족가치로 주목받고 있다[8].

이에 본 연구는 여성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의 현주소를 찾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그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 등의 주요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대적 부양 의식을 형성하는 건강한 가족주의가치관 및 친밀감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여성의 부양의식,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여성의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 개인적 특성 중 노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거주하는 여성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30대부터 60대까지의 중년기 여성으로 미혼 및 기혼상태를 모두 포함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560부 배포하여 총 428부가 수집되었다. 회수율은 75%이었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하게 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422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수는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를 충족하고 있다.

2.2 측정도구

2.2.1 부양의식

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경제적 부양 4문항, 정서적 부양 4문항, 신체적 및 서비스 부양 4문항 등으로 전체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부양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도 부모님의 용돈을 드릴 것이다’, 정서적 부양은 ‘부모님이 했던 말을 반복하더라도 노인의 특성임을 이해하고 들어드릴 것이다’, 신체적 및 서비스 부양에서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밤을 세워서라도 간호해 드릴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식을 조사한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로 나타났다.

2.2.2 가족주의 가치관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 중으로는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 우위에 둔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은 나와 내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일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74로 나타났다.

2.2.3 부모친밀감

본 연구에서는 부모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의 문항은 긍정적인 질문이고, 5개의 문항은 부정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적인 질문은 ‘나는 부모님을 신뢰한다’, ‘나는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인 질문은 ‘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볼 때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끼는 사건들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6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둘째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의식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주의가치관, 부모친밀감,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독립 변인을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령, 교육, 결혼상태, 직업유무, 종교, 월평균 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연령의 경우 40대가 198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50대순으로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183명(43.4%), 고졸 154명(36.6%), 중졸 53명(12.5%), 대학원졸이 26명(6.2%)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84명(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인 경우도 111명(26.3%)이었다. 기혼여성의 경우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를 포함시킨 노부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직업이 있는 여성은 169명으로 40%에 해당되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161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 월가구소득은 월 501만원이상이 108명(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1만원이상, 301만원이상, 201만원이상, 101만원이상 순이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Age	30'	133(31.5)
	40'	198 (46.9)
	50'	90(21.3)
	missing data	1(0.3)
Education	Middle School	53(12.5)
	High School	154(36.5)
	College	183(43.4)
	Graduate school	26(6.2)
	missing data	6(1.4)
Marital State	single	111(26.3)
	married	284(67.2)
	divorce/separation	8(2.1)
	separation by death	15(3.6)
	missing data	4(0.8)
Occupation	occupation	169(40)
	inoccupation	249(59.2)
	missing data	4(0.8)
Religion	Protestants	161 (38.2)
	Catholics	76(18.9)
	Buddhists	78(18.4)
	Etc.	52(12.3)
	No religion	50(11.0)
Income	missing data	5(1.2)
	~100million won	27(6.3)
	101million won~	38(8.9)
	201million won~	62(15.3)
	301million won~	81(19.1)
	401million won~	93(21.9)
	501million won~	108(25.5)
missing data	13(3.0)	

3.2 주요변수의 특성

3.2.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 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인은 가족주의가치관,

부모-자녀 친밀감 및 노부모 부양의식이다. 이들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분석에 관한 결과를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족주의가치관은 5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3.23점(SD=.414)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부모친밀감의 경우는 5점 만점에서 3.40점(SD=.519)으로 보통 수준 보다 다소 높았다. 부양의식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4.07점(SD=.501)이었다. 전체 부양의식 수준은 “상당히 그렇다”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양의식의 하위 영역별로는 경제적 부양이 4.08점, 정서적 부양이 4.10점, 신체적 부양이 4.04점, 서비스 부양이 4.0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Sample size	Mean	SD	Minimum	Maximum
Filial Responsibility	422	4.07	.501	2.38	5.00
Intimacy	422	3.40	.519	1.00	4.90
Familism	422	3.23	.414	1.70	4.95

3.3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계수와 VIF 혹은 Tolerance값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기준은 상관계수가 .8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고려해야하며, Tolerance는 1이하, VIF는 10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각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아래 표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계수가 .80이상인 변수가 없어 상관관계 계수 상에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tolerance값은 .829~.9205의 범위였으며, VIF는 1.012~1.23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4)
1)	1			
2)	.488**	1		
3)	.395**	.294**	1	
4)	-.110*	-.066	-.087	1

1)Filial Responsibility, 2)Intimacy, 3)Familism, 4)Income
*p<.05, **p<.01, ***p<.001

3.4 노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에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월평균소득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제시된 독립변인들로 구성된 회귀모형은 35.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변인인 가족주의가치관(*** $p < .001$)과 부모친밀감($p < .001$) 모두 노부모 부양의식에 매우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통계상,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친밀감 모두 P 값이 .001보다 낮은 수준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미치는 종속변수의 값인 β 값에서 가시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친밀감의 β 값이 가족주의가치관의 β 값보다 크게 제시되었다. 이같이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이 부양의식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10년 전에 연구를 실시한 신수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p < .05$).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filial responsibility

variable	B	SE	β	t-value
Familism	.373	.099	.185	3.776***
Intimacy	.589	.068	.418	8.776***
monthly income	.005	.003	.095	2.050*
constant	56.02	6.694	8.369**	
R	.596			
R ²	.335			
AdjustedR ²	.339			
F	8.34044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및 제언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여성의 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서

4점을 넘는 상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가족주의가치관은 중간 수준, 부모친밀감은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친밀감 모두 현대 성인여성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매우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1].

한편, 본 연구는 임의표집방법을 한 연구방법의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기 여성의 건강한 부양의식 고양 및 노인가족의 적응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제언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의 계승과 동시에 현대적 사조인 민주성과 개인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절충적인 현대적 가족주의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통적 가족윤리와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는 보존하되, 주부양자인 여성들이 노부모 부양을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부모 부양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 및 자녀간의 강한 유대감 및 친밀성, 애착 등의 긍정적 감정은 자녀양육 차원에서만 필요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이것이 향후 부모의 노후부양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에 가족 간의 긍정적 정서적 관계형성은 가족주기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가족자원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 사회를 앞둔 현실점에서, 현대여성에게 존속되는 노부모 부양의식을 격려하되, 이와 병행하여 국가는 공적 및 사적 부양시스템이 병행되는 통합적 부양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노년을 맞는 현대의 중년기들이 노후에 대한 지나친 불안 및 우울을 낮추고[12,13], 현실적으로 당면한 노후를 잘 준비하도록 개인과 국가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14,15].

ACKNOWLEDGMENTS

This study is sponsored by the 2016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REFERENCES

[1] S. H. Zarit, A. B. Edwards, Family caregiving: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 In B. Woods, & L. Clare (Eds.), Handbook of the clinical psychology of ageing (2nd edition), John Wiley & Sons, Ltd. 2009.

[2] A. E. Barnett, Pathways of Adult Children Providing Care to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5. pp.178-190. 2013.

[3] J. Scanzoni, Contemporary families and relationships-reinventing responsibilities. New York : McGraw-Hill. 1995.

[4] G. Sheehy, Passages in caregiving : turning chaos into confidence. New York, NY : Harper Collins. 2010.

[5] G. Stephen. Women and elderly parents: Moral controversy in an aging society. Hypatia, Vol. 5, No.1, pp.83-89. 1990.

[6] S. J. Shin, Analysis of Written Materials on Its Fundametal Idea and Developmental Process = Tradition of Korean Familis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3, No.1, pp.127-152.1998.

[7] D. Y. Song, The Consciousness of Family Caregiving Among Women and Eldercare Polic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19, No.8, pp.207-233. 2004.

[8] S. J. Shin, Analysis of Written Materials on Its Fundametal Idea and Developmental Process = Tradition of Korean Familis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3, No.1, pp.127-152.1998.

[9] J. H. Choi, Familism, filial piety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among adolescent, middle, and old gener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7 No.9, pp.85-101. 1999.

[10] S. J. Shin, (A) Study on adult children's filial responsibility : convergence of social exchange perspective and symbolic unteraction perspctive, Ewha Woman's University. 1993.

[11] . J. Shin, (A) Study on adult children's filial responsibility : convergence of social exchange perspective and symbolic unteraction perspctive,

Ewha Woman's University. 1993.

[12] M. J. Kwon,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1-176, 2015.

[13] H. J. Choi, Soon-Gi Back, "A Study on Depressive disposition by Convergence approach of Leisure History and Family situation in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95-302, 2015.

[14] H. S. Jeon(. The effects of the locus of control and Aging Anxiety on preparation for old age in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10, pp.571-576. 2014..

[15] H. Y. Lee & H. S. Jeon, The Relations of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Focused on Middle Aged People of Digital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9, pp.417-422. 2014.

전혜성(Jeon, Hye Seong)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 적응, 가족상담, 디지털교육 등
- E-Mail : hsjeon@dankook.ac.kr